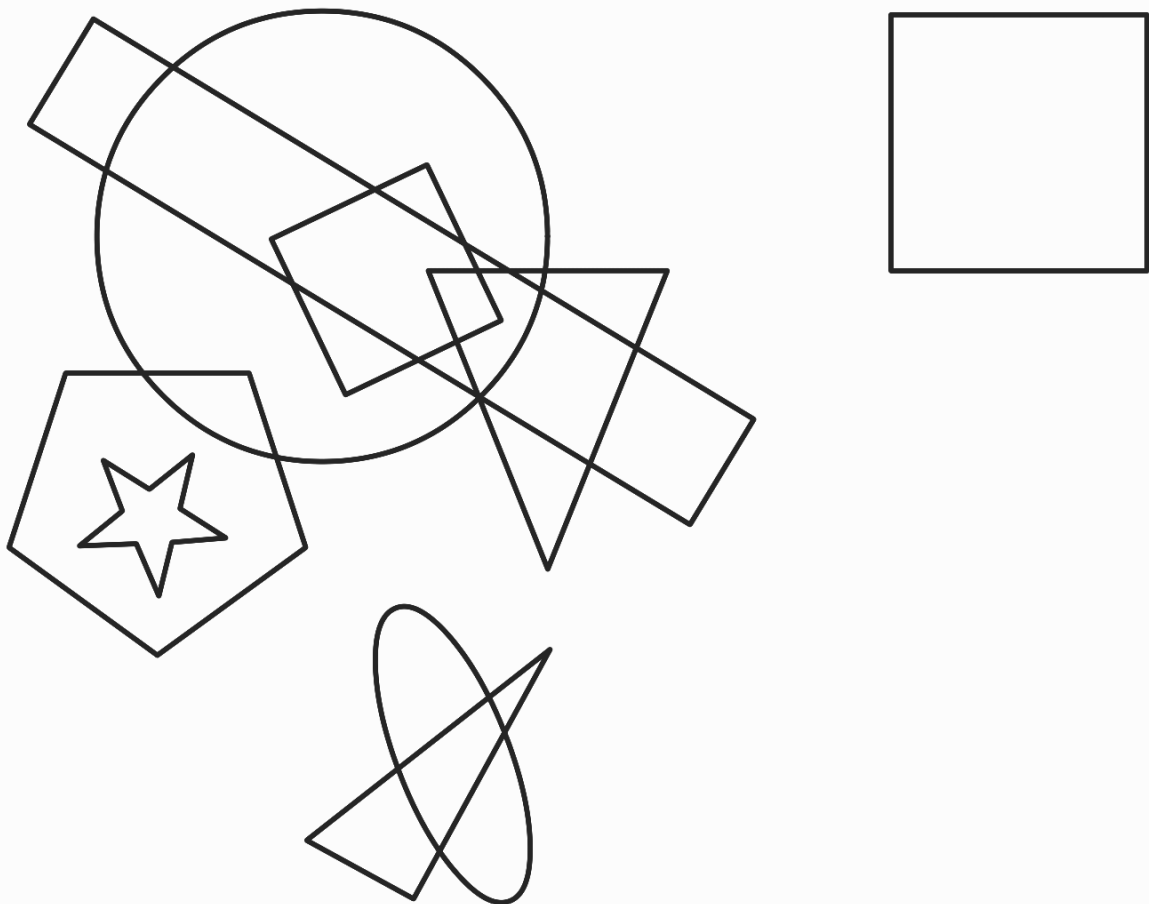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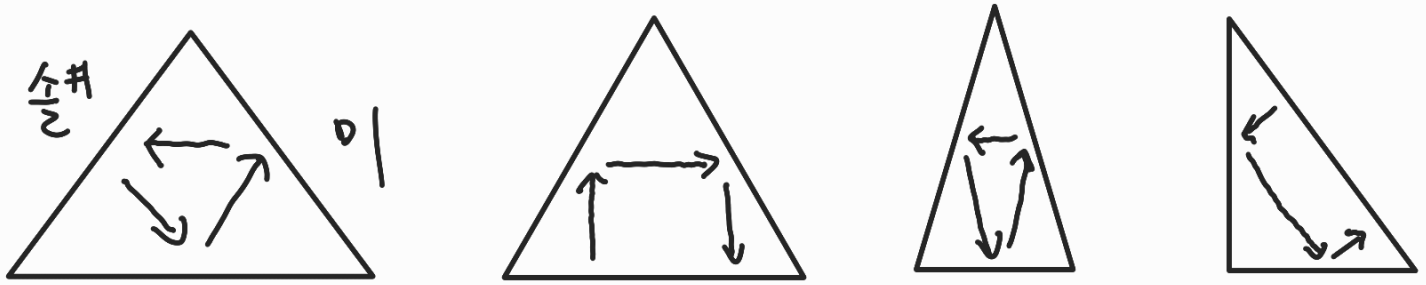


원래 한 곡 오래 듣는 걸 못함. 질리기 일쑤였음. 변화무쌍한 곡을 보고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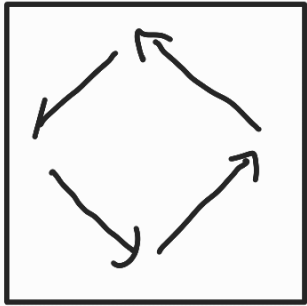
이 곡은 여러 도형들로 이루어진 곡. 도형끼리 겹치는 부분, 도형의 특성, 그 안에서 공이 튀기며 만들어지는 리듬, 공의 속도, 공의 방향으로 같은 악보이지만 전혀 다른 곡이 매번 탄생. 공이 처음에 출발한 순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우연성 음악. 이 아이러니함. 이게 포인트인 듯.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악보와의 차별성. 변마다 음을 부여함. ex)삼각형->변3개 도,미,솔#, 사각형->변4개 도,미b,솔b, 시bb, 6각형->변6개 도,레,미,파#,솔#,라# 12각형->변 12개 12음. 각각의 도형만으로도 다양한 음 사용 가능하지만, 도형이 서로 겹친다면? 새로운 리듬, 음형 나올 것. 나름의 규칙성도 있을듯? 곡선도 추가된다면? 무궁무진함. 씩2게더 영화 보면서 느꼈음.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디지털을 이용한 맥시멀리즘 음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 말러 이후 최대의 맥시멀리즘.. 기존 악보의 틀을 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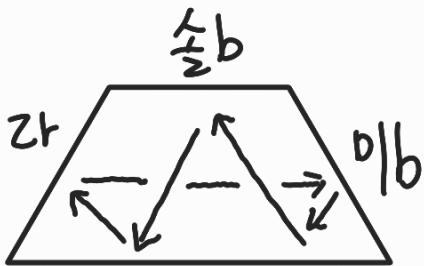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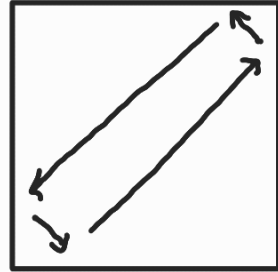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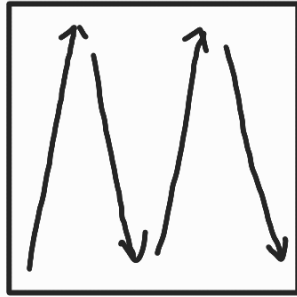


Σ

1/2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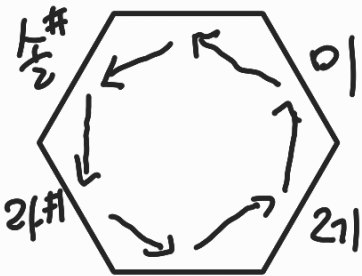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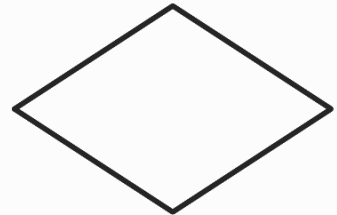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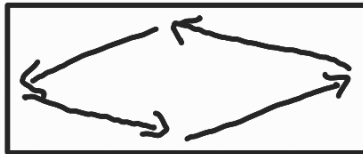


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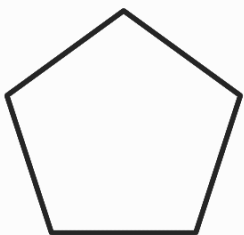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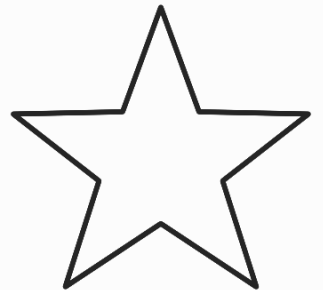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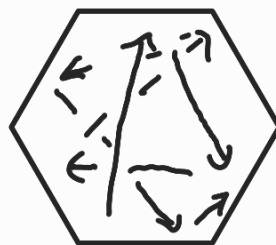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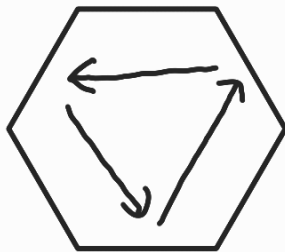


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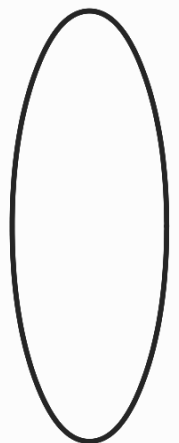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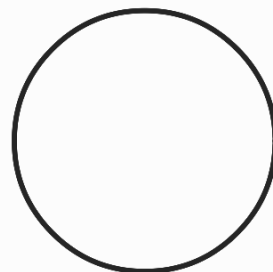
1/2 #



Σ



7각형.
12각형.



← ex) 1/2 #

